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TEA & TALK

# “지금, 여기, 우리 이슈 Issue”

지난 3월 8일, 진한 커피향으로 가득찬 대전세종연구원 1층은

색색의 종이에 펜을 놀리는 분주한 손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지금, 여기, 우리 이슈 Issue”라는 주제로 Tea&Talk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젠더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들은 일, 돌봄, 복지, 건강, 인권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직접 MeToo 이슈 페이퍼를 작성하고, 게시함으로써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계 여성의 날, 우리 모두의 축제
- #펜스들이 아닌 공감과 지지를 원한다
- #답게, 담게, 사람답게!!
- #우리, 같이, 나란히
- #권력형 젠더폭력 '추방'
- #권력형 젠더폭력 근절! 3.8 세계 여성의 날 기억하자
- #아이돌보미 제도의 내실화!
- #성별임금격차 언제까지? 이 격차 반말세!
- #젠더폭력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 #배려, 관심 for women. 우리 가족을 위한 가치입니다
- #성별인격격차 범죄입니다
- #남녀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 세상을 꿈꾸며
- #고정관념 스투핏, 타인에 대한 진지한 고려 그웨잇
- #여성이 행복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 #선배 여성들의 노력, 헌신, 사랑 이어가겠습니다.
- #Girls can do anything!!
- #성평등! 우리 모두 노력하면 세상을 바꿉니다
- #집안의 해바라기꽃이 활짝 필 때 행복이 흐른다. 넘친다. 해바라기꽃=어머니=女
- #젠더폭력 사회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자
- #여성들에게 용기를!! 남성들에게 경각심을!!

### \*3.8 세계 여성의 날이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쫓겨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 UN에 의하여 공식 지정되었다. 이후 여성들의 국제적인 연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빈곤 타파 등 여성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현재까지 매년 3월 8일을 기해 세계적으로 기념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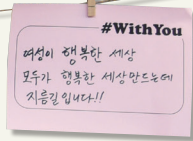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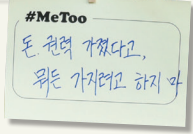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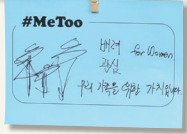


# 지금, 여기, 우리 이슈 Issue



##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여성가족 복지 ”

가족 및 돌봄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 지위에 위치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어렵기 때문에 미비한 영역들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야  
최해경(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이론적인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경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서순자(물구나무 다사랑 가정폭력상담소장)

## “ 우리는 왜 여성노인에 주목해야 하는가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시점에서 남성노인보다 수명이 긴 여성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사회소외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김정옥(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이 답이다 ”

연령, 계층 구분 없는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시간 증대,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현장 연계를 통한 교육 등 내용의 다각화에 힘써야  
윤정성(대전청년네트워크 대표) · 김정현(대전광역시일센터장)

## “ 청년은 단지 나이가 젊은 남자가 아니다 ”

“꼭 남성, 대학생만이 청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과 지위, 위치에 있는 청년들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 있어  
김지찬(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컨설턴트)

## “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하는 여성가족정책 ”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 부처, 전문가, 연구자, 시민 모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이영세(세종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 “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 늘려야 ”

여성새일센터만으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 없는 배우자의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처럼 추가적인 지원 있었으면  
이주은(마을진로학교 '자작나무' 대표 · 여성정치네트워크 운영위원)

##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기초 자료 확보 중요해

경력단절여성의 비율, 정책 수요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욕구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필요해

이경림(대전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부센터장)

## “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고민 필요

경력단절 이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 나아가 경력단절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중요해

엄숙희(대화동근로자복지회관 국장)

## “ 마을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공간, 도서관

도서관은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장소이자,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소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마, 아이 더불어 가정과 마을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써 도서관 확충해야

김계숙(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상임대표)

## “ 젠더폭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젠더폭력은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서 발생하며, 권력형 젠더 폭력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직장여성의 유리천장도 포함돼

황은주(청년고리 정책연구원)·엄숙희(대화동근로자복지회관 국장)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 “ 현장과 연구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교류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실무 현장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해

김윤희(대전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처우 개선에 힘써야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종사자수는 부족하고 근무환경은 열악해

정현주(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 “ 성대결이 아닌 공감과 배려를

성 대결 구도가 아닌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려면, 남녀 모두가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에 대해 실천하고 민감성을 가지는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야

배순화(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탁의회장)

